

위치통사론을 통해 살펴 본 몇 가지 통사론의 본질적 문제

임재호
(연세대학교)

1. 여는 말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언어학자 Milner(Jean-Claude)의 언어이론을 통해 본 몇 가지 통사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언어학의 핵심적인 부분들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언어학의 대상만은 아닌 ‘인식론적’, ‘학제적’인 것이다.¹⁾

이 논문에서는 언어현상의 세밀한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논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의미있는 언어현상을 제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어떤 논쟁적인 문제를 논증 과정을 통해 다룸으로써 모종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를 나름의 형식으로 다시 한 번 정리, 제기하고 새로운 모색의 통로를 여는 정도에서 논의를 그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잠시 Milner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Milner

【Keywords】 syntaxe positionnelle, indépendance de la structure syntaxique, structure positionnelle, épistémologie du dispositif théorique, paradoxe positionnel, relation d'occupation, géométrie de la syntaxe, logique empirique

* 이 논문은 줄고(2004)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인식론적’, ‘학제적’이라는 수식어는 실은 과분한 것이다. 인식론 분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초보적일 뿐이고, ‘학제적’이란 말이 내실있는 것이기 위해 필요한 인접학문에 대한 엄격하고도 엄밀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일종의 시론(essai)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前) 파리7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는 현대 프랑스 언어학계의 한 축을 대표하는 학자로, 현재는 언어학자보다 철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철학 뿐 아니라 정신분석학,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로 그 분야에서 의미있는 저서들을 펴내고 있다.²⁾ 현재 프랑스 지성계의 흐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독창적 사유의 도착지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Milner는 1989년 출간한 자신의 책 『언어과학입문(Introduction à une science du langage)』에서 언어과학의 성립 조건을 검토하고, 흔히 ‘위치통사론(syntaxe positionnelle)’이라 불리는 자신의 언어이론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³⁾

2) Milner의 대표적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언어학 분야: 『De la syntaxe à l'interprétation』(1978), 『Ordres et raisons de langue』(1982); 철학 분야: 『Le pas philosophique de Roland Barthes』(2003); 정신분석학 분야: 『L'amour de la langue』(1978), 『L'œuvre claire : Lacan, la science et la philosophie』(1995), 『Le triple du plaisir』(1997); 문학 분야: 『Mallarmé au tombeau』(1999); 정치 및 교육 분야: 『De l'école』(1984), 『Constat』(1992), 『Archéologie d'un échec : 1950-1993』(1993), 『Le salaire de l'idéal』(1997).

3) Milner의 삶은 Benveniste의 삶이 그러하듯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을 주제로 삼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Jakobson의 삶의 대외적 투명함과 Benveniste의 삶의 불투명함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그의 삶의 대외적 불투명함은 Benveniste의 그것에 가깝다. 단편적으로 소개된 그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 재구성하여 보면 이렇다. 그는 1941년 파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인문학의 산실인 파리 고등사범 학교를 다녔다. 그 곳에서 Lacan과 Althusser의 사사를 받으며 교내 학술 그룹이었던 <인식론 씨클(Cercle d'épistémologie)>을 이끈다. 이 그룹은 1966년 1월부터 1년에 세 차례 <분석을 위한 연구(Cahiers pour l'analyse)>라는 이름의 학술 잡지를 간행하는데, 나중에 Lacan의 사위로 Lacan의 저작권자가 된 Miller, Collège de France의 언어 철학 담당 교수가 된 Bouveresse, Milner와 함께 『낭독에 관하여(Dire le vers)』를 저술한 파리8대학교 정신분석학과 교수 Regnault 등이 일원이다. Benveniste가 Collège de France에서 공개 강의를 할 때 청강생이었으며, Barthes의 세미나에 출석하여 Barthes를 맹공격하였다. 당대 프랑스 언어학의 대표 주자인 Culioli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논문문을 쓴 그는 Boston 유학기(遊學期)에 Jakobson과 Chomsky의 강의를 듣고 근 30년 동안 Chomsky 언어학의 계열 내에서 활동한다. 그의 주저 『언어과학입문』은 이 ‘근 30년’을 결산하고 자신의 길을 제시한 전환적인 장소다. 그는 철학 분야 교원 자격증(agrégation)을 취득하였고, Derrida가 설립한 <국제철학학교>의 교장을 지냈다. Mallarmé와 Proust에 대해 박학하며, Lacan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학들 중 하나다. 젊었을 때 정치적으로 마오주의자였던

이제 본론에서는 우선 통사구조의 독립성 문제를 Milner의 언어이론을 통해 살펴보자.

2. 위치구조(structure positionnelle)로서의 통사구조

통사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에서부터 통사구조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주지하다시피, 거칠게 말해, 통사구조란 일종의 언어 형식의 질서를 말한다. 여기서 ‘형식’은 물론 음성 형식이나 형태론적 형식과 구분되는 형식이다. 예컨대, “나는 내 아들이 기차를 타도록 했다”라는 의미에 연결되어 있는 프랑스어 문장 *J'ai fait prendre le train à mon fils*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형식을 갖는다. 첫째, 그 문장은 음성 형식을 갖는다. 둘째, 형태론적 형식을 갖는다. 대표적인 형태론적 형식으로는 문법적 일치 현상의 형식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으로 통사구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통사구조에 관하여 크게 보아 두 가지 이론이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자리(place)의 이론’으로, 다른 하나는 ‘위치(position)의 이론’으로 부를 수 있겠는데, 자리의 이론에 따르면, 인용한 예문의 통사구조는 *J'ai fait donner une couchette à mon fils* (“나는 내 아들에게 작은 침대를 주도록 했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리는 어휘(terme lexical)의 자리로 지각(perception)에 기대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위치의 이론에 따르면(위치통사론은 일종의 위치 이론임.), 인용한 두 예문의 통사구조는 상이하다. 다시 말해 자리와 구별되는 위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이차적으로 어떠한 표상을 통해 통사구조를 드러내건, 문제의 통사구조들은 서로 다른 것이다. 아래 예문으로 우리의 논

그는 68혁명의 주요한 인물이었고, Foucault가 죽기 전 *Seuil* 출판사의 ‘연구(Travaux)’ 총서를 함께 기획했다. 그의 최근 행보를 보여주는 저술로는 『Les penchants criminels de l'Europe démocratique』(2003), 『Voulez-vous être évalué?』(2004) 등이 있다. 특히 전자는 앞서 출간된 그의 정치적 저술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발간 직후 프랑스 지식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자.

(1) J'ai fait écrire une lettre à ma femme.

위의 예문은 중의적(ambigu)이다. *Ma femme*는 *une lettre*를 쓴 사람일 수도 있고 받을 사람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의성을 자리의 이론에서는 '통사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휘의 '자리'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하나의 문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에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러나 위치의 이론에서는 통사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치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문 (1)이 중의적인 것은, '본질적으로는 지각 불가능한 그 예문의 통사구조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 역시 위치와 자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위치 이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2) Sylvie aime Bruno.

(3) Bruno aime Sylvie.

위의 두 예문은 자리의 차원에서 상이하다. *Sylvie*와 *Bruno*의 자리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Sylvie*와 *Bruno*의 자리바꿈이 두 예문의 위치구조마저 바꾸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치의 차원에서는 두 예문이 차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두 예문에서 문두의 위치는 주어의 위치로 동일하고, 동사 다음의 위치는 동사의 보어(complément) 위치로 다르지 않다.

(4) A Paris, Marie a rencontré Pierre.

(5) Marie a rencontré Pierre.

위의 예문들도 위치 이론을 뒷받침한다. 예문 (4)의 *A Paris*와 예문 (5)의 *Marie*는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예문 (4)에서 예

문 (5)의 *Marie*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는 어휘는 *Marie*다 (Marandin(2001: 180)).

Milner가 자리와 위치의 차이를 밝히는 데 인용한 문장 중에는 또한 *Belle Marquise, vos beaux yeux me font mourir d'amour*가 있다. 이 문장은 Molière의 희곡 <귀족적 부르주와 *Le Bourgeois gentilhomme*>의 주인공 Jourdain의 문장이다. 그는 이 문장을 연서에 적어 자신이 흠모하는 후작부인에게 보낼 요량인데, 자신의 철학 교사에게 그 문장을 유행에 맞게 그리고 가다듬어 보내고 싶다며 그것을 말하는 다양한 방법을 묻는다. 철학 교사는 그 문장이 (6)에서와 같이 변주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중 문장 (6a), 즉 Jourdain의 문장이 실은 가장 좋은 문장임을 알려준다. Milner의 용어로 말하면, 문장 (6a)의 어휘의 배열 관계는 '규범적 어순(ordre des mots canonique)'에 속하며, 나머지 문장들의 배열 관계는 '비규범적(non canonique)' 어순에 속한다. 그런데 규범적, 비규범적 어순의 변주는 자리의 변주일 뿐이다. 아래 문장들 (Molière(1976: 730-731))의 위치구조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

- (6) a. Belle Marquise, vos beaux yeux me font mourir d'amour.
- b. D'amour mourir me font, belle Marquise, vos beaux yeux.
- c. Vos beaux yeux d'amour me font, belle Marquise, mourir.
- d. Mourir vos beaux yeux, belle Marquise, d'amour me font.
- e. Me font vos beaux yeux mourir, belle Marquise, d'amour.

기존의 대표적인 자리 이론으로는 Gross(Maurice) 통사론을 들 수 있고, 위치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는 Chomsky 언어학을 들 수 있다. Milner가 통사 위치 (구조)의 존재를 처음으로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Milner의 위치통사론에 와서 통사 위치 (구조)에 대한 가설은 '명시적으로' 통사론 일반의 핵심 문제로 간주되었고, 이론 전체의 핵심에 놓인 후, 명증의 단계에서 다룸어짐으로써 반증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통사 위치 (구조)에 대한 가설은 Milner에 와서야 비로소 포퍼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이다.

Marandin(2001)의 표현을 빌어 달리 말하면, Milner는 통사 위치 (구조)의 중요성을 최초로 ‘제대로’ 인식하였고, 그 어느 언어학자보다 명시적으로 통사 위치 (구조)에 대한 가설을 자신의 이론의 토대로서 제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이론적 장치(dispositif théorique)의 인식론

앞 절에서는 위치 (구조)가 자리 (구조)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논하였다. 이제 언어이론이 어떻게 관찰 불가능한 위치 (구조)에 다가갈 수 있는지 논하여 보자.

주지하다시피 ‘science’라는 말은 중의적이다. 그 말은 ‘학문 일반’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연과학의 ‘과학’을 지시(référence)하기도 한다. 그 양자간의 경계가 프랑스어에서보다는 독일어에서 분명하게 표시되고 있음 (Science=Wissen/Wissenschaft)은 널리 알려져 있다. 언어학을 ‘언어에 대한 과학’이라는 의미에서 ‘언어과학’이라 부를 때 쓰이는 ‘과학’은 물론 후자의 과학이다. 언어과학은 인문과학 중에서 과학의 의미를 가장 자연과학의 그것과 가깝게 하고자 욕망해 온 분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욕망에 기인한 움직임의 두 정점에 Saussure와 Chomsky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Saussure는 언어학의 ‘대상’과 ‘방법’에 천착, 인문과학에 ‘언어학적’ 인식론을 제공하였으며, Chomsky(1980: 219)는, Milner(1989: 12)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과학의 방법이 포기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연구는 그것이 신중한 것이라면 마땅히 갈릴레이적 스타일(style galiléen)을 채택하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와, 현대 언어학 내에서 ‘혁명’을 이뤄낸 두 학자가 추구한 과학성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후자의 과학성이 갈릴레이적인 것이라면, 전자의 과학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발원하여 유클리드와 ‘기하학적(more geometrico)’ 흐름을 타고 Saussure 앞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Milner(2002: 22-23)에 따르면, 전자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연구대상

의 단일성(unicité)과 연구분야의 동질성(homogénéité) 원칙, 최소 그리고 최대 원칙(principe du minimum et du maximum), 명백성의 원칙(principe de l'évidence)이다. 첫째 원칙은, 과학은 자신의 연구분야를 갖고 그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관계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연구대상을 갖는다는 점을 말한다. 둘째 원칙은, 과학의 명제들은 공리(axiome)와 정리(théorème)들이며, 최소의 공리들로부터 최대의 정리들로의 연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과학이라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Milner는 인식론적 최소주의(minimalisme épistémologique)라 부른다. 셋째 원칙은 과학의 모든 공리들과 기초 개념들(concepts primitifs)은 증명이나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갈릴레이적 스타일의 핵심은 Koyré(1973[1966]: 168-169)를 통해 보면 '실험(expérimentation)'에 있으므로, 실험이 Chomsky가 추구한 과학성의 중심에 있다 할 수 있다. 실험은 사실 Chomsky의 과학성과 Saussure의 과학성이 갈라지는 분기점과 같은 것이다.⁴⁾

그런데 언어학이 언어과학이라면, 그래서 통사론도 일종의 과학이라면, 통사의 단위와 통사구조도 기본적으로 관찰(observ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리의 이론은 자리 (구조)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다. 반면에 위치의 이론은 위치 (구조)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벌써 비과학적인 것으로 분류될 처지에 놓인다.

그런데 인식론은 다행스럽게도(?) 단일하지 않다. 대상에 도달하는 길은 단수가 아니라 '방법'으로서 복수인 것이다. 예를 들어 Koyré는 '경험의 수확화'를 과학의 한 속성으로, '기술(technique)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론'이라는 속성을 과학의 또 다른 속성으로 간주하였는데(Milner(1989: 23)에서 재인용), 위치 (구조)가 '기하학의 차원에서' 계산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은 위치통사론을 일종의 과학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수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 공간이나 최첨단 전자현미경으로도 관측 불가능한 미립자의 세계 역

4) 촘스키(2003: 20)는 소쉬르의 언어이론 내에는 "자연언어의 통사구조가 허용하는 규칙들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정확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이 지적을 실험 장치의 부재에 관한 우회적인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시 관측장치(observatoire)의 부재로 관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론과 물리학이 자연과학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이고자 하는 위치통사론을 위안한다. 우주론과 물리학은 빅뱅이론에서처럼 경험의 토대 위에서 ‘과학적 상상력’(Holton)을 발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상상력이 문학, 예술에서 뿐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중요한 인식 작용으로 간주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과학에서는 특히 ‘관측’에 대립하는 ‘추측(conjecture)’이라는 개념에, 과학적 상상력에 기대 활동을 담아내어 말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한 위치(구조)는 추측에 의해 접근할 수 있겠다.

언어학사에서 이러한 추측이 가장 빛을 발하던 때는 비교문법(grammar comparée)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교문법은 주지하다시피 일련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인구모어(langue-mère indo-européenne)’라는 가상의 존재를 추측하던 활동이다. ‘재구(reconstruction)’라고 불린 그 추측의 과정은 관측장치 없이 수행되었거니와, 다만 우리가 Milner와 함께 ‘이론적 장치’라고 부르는 장치가 관측장치를 대신하여 기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론적 장치는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의 핵심 개념으로서, ‘관측장치가 부재하여 관찰할 수 없는 대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제들의 조직적 총화’다.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이란, 어떤 실재(réel)가 어떤 이유로 관찰이 불가능할 때, 일련의 명제들로 이론을 구축한 후 그것으로 실재의 드러냄, 즉 설명(explication)을 도모하는 인식론이다.

지금까지 행한 논의를 정리하여 우리의 핵심 논제로 돌아와 보면,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자리(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구조)는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에 기대어 추측할 수 있다. 자리가 일종의 현상이라면, 위치는 현상 너머에 실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론적 장치에 의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은 일종의 실재론이고,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언어이론은 실재론적 언어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통사구조의 독립성, 자연언어의 자연성, 위치의 패러독스

그러면 자리 (구조)와 위치 (구조)는 서로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위치 구조를 통사구조로 간주하는 위치통사론자는 일차적으로 양자간의 단절(coupure)를 말할 것이다. 위치 구조는 위치와 자리의 단절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존재 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의 단절 위에서, 위치와 자리의 관계는 이차적으로 논의 가능한 것이 된다. 독립된 위치 구조와 독립된 자리 구조는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는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Milner의 답변은 ‘자연성(naturalité)’이라는 개념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자연언어는 - 그것의 명칭 자체가 나타나고 있듯이 - ‘자연적이고자 하는 경향(tendance)’을 갖는다고 Milner는 주장한다. 자연성은 자연언어의 여러 측면에 나타나는데, 각각의 모듈(module)로 자연언어를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그 각각의 모듈간의 동형성(isomorphie)으로도 표현된다고 주장한다.⁵⁾ 이 주장대로라면, 자리와 위치가 각각 독립된 모듈의 단위라고 할 때, 자리와 위치의 구조는 동형(일치)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자리 구조와 위치 구조의 동형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은 자리 구조를 기반으로 위치 구조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위치 구조는 관찰 불가능하지만 그것과 자연적으로 동형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 구조를 토대로 계산할 수 있다.

5) 우리가 보기에 언어 연구에 있어서 자연성이라는 개념의 연원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Le Sophiste』 (261e-263d, 1993: 191-197)에서 자신의 문장 구성론을 펼치면서, 자연성에 상응하는 개념인 ‘조화(harmonie)’를 말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문장(logos)은 nom과 verbe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조직체다. 그 조화 또는 어울림이 깨졌을 때 문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 문장 구성 원리로서의 조화라는 개념을 약간의 예를 제시하며 언급하였을 뿐, 그것을 전문 용어로서 다듬는 등 천착하지는 않았다. Milner처럼 예컨대 언어를 모듈들의 집합으로 가정하고 그 모듈들간의 관계로서의 조화를 주장하기에는 플라톤의 논의는 지극히 소박한 것이다. 그러나 Milner의 자연성 개념과 플라톤의 조화 개념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 (7) Il est arrivé trois étudiants.
- (8) Trois étudiants sont arrivés.
- (9) Pierre est arriv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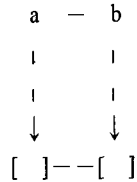
예를 들어 예문 (7)에서 대명사 *Il*이 나타난 자리는 주어의 ‘자리’가 아니다. 주어는 *trois étudiants*으로 문미에 있다. 주어의 자리는 주어인 어휘가 놓인 자리다. 반면에 대명사 *Il*은 주어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어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Il*은 통사형태론적 주어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동사 내의 문법적 일치의 원천(source)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문 (8), (9)에서와 같이 프랑스어에서는 주어라는 ‘통사론적 기능과 논리·의미론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어휘가 ‘규칙적으로(반복적으로)’ 동사 앞의 문두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반복’을 통하여 자리는 위치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반복을 통하여 규칙이 된 위치에서, 어휘의 자리가 변하여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자리와 위치의 불일치로 인하여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ex. 예문 (7)의 주어 위치에서의 불일치)를, ‘불규칙적인(anomal)’ 경우라는 의미에서, ‘위치의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 있겠다.⁶⁾

5. 통사론의 대상의 범위, 점유관계, 점유관계의 인식과 표상 범위

앞에서 말했듯이, 위치통사론의 관점에서 통사구조의 단위는 자리가 아니라 위치다. 자리는 오히려 어휘적인 것이다. 위치는 자리와 달리 관찰 불가능하며, 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추측의 대상인 실재다. 이 위치의 속성에 대해

6) Milner가 말하는 위치의 패러독스는 다르다. 그는 어떤 어휘가 자신의 정위치(position canonique)에 있지 않으면서 그 위치로부터 통사적 기능을 부여받는 것을 위치의 패러독스라 명명하였다. 예컨대 *le livre que j'ai lu*라는 표현에서 *le livre*는 자신의 정위치인 관계절 내의 동사 다음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위치로부터 동사의 보어라는 통사적 기능을 부여받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Milner는 위치의 패러독스라 불렀다. Milner의 위치의 패러독스는 ‘통사적 기능’과 관련 있는 개념인 반면, 우리의 위치의 패러독스는 위치와 자리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주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말해보면, 그것은 우선 일종의 ‘터(site)’다. 터란, 주지하다시피, 어떤 존재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언어에서 터-위치(site-position)의 점유자는 어휘다. 어휘는 터-위치를 점유함으로써 비로소 통사공간과 관계맺는다. 여기서 다시 통사구조의 독립성을 논할 수 있는데, 위치통사론의 관점에서, 통사구조는 자리 구조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휘에 대해서도 독립적이다. 터-위치를 단위로 하는 통사구조는 어휘의 차원과 별도의 차원에 있으며, 어휘의 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어휘의 차원과 연계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그림 1)⁷⁾

위의 그림에서 a와 b를 어휘라 하고, []를 위치들, 어휘들 사이의 실선은 어휘/자리간의 관계, 위치들 사이의 점선은 위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자. 엄격한 의미에서 통사적인 것은 []로 표시한 위치들과, 점선으로 표시한 위치들간의 관계다. 어휘 a, b와 그들의 자리,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한 어휘/자리들간의 관계는 엄격한 의미에서 통사적인 것이 아니다. 어휘 a, b가 통사적인 것과 연계되는 순간은 그 어휘들이 위치를 점유할 때다. 이 점유의 순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Milner는 ‘점유관계(relation d’occupation)’라 불렀다. Milner는 이 어휘와 위치의 점유관계 역시 자연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보았는데, ‘자

7) 이 그림의 원형은 Nicod(1962: 54-55)에 있다. Milner(1989: 291)는 그 원형을 자신의 언어이론 내에서 언어학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한 차례 수정한 바 있다(Milner(1990) 참조). (그림 1)은 Milner의 수정본을 필자가 다시 수정한 것이다(LEEM(1995: 45-46) 참조). 그림에서 점선은, 본질적으로는 지각 불가능한, 점유관계 그리고 위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연스러운' 점유관계는 일반적인 점유관계로, 점유자인 어휘의 범주와 점유되는 위치의 범주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명사구(*groupe nominal*)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명사구 범주의 위치를 점유할 때 발생하는 점유관계는 자연스러운 점유관계다.

(10) [_{GN} (_{GN} L'étoile du soir)] est Vénus.

예를 들면, 예문 (10)의 주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점유관계는 자연스러운 점유관계다. 명사구 범주에 속하는 어휘군이 명사구 위치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자연언어의 점유관계가 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점유관계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점유관계, Milner의 표현에 따르면, '왜곡에 의한(*par distorsion*)' 점유관계가 있다. 왜곡에 의한 점유관계란, 점유자인 어휘의 범주와 점유되는 자인 위치의 범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점유관계다.

(11) [_{GN} (_{GP} In England)] is where I met him.

예컨대 예문 (11)의 주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점유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은, 왜곡에 의한 점유관계다. 그것은 '억지로' 이루어진 점유관계로, 일반적으로는 명사구 어휘군이 점유하는 위치를, 전치사구 범주에 속하는 어휘군이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관계는 그러나 자연언어가 허용하는 점유관계라는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점유관계와 다르지 않다. 자연언어가 허용하는 왜곡이 어느 정도까지일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측정(*mesure*)은 경험적으로 가능할 것이다.⁸⁾ 예를 들어, *Je veux* 다음의 위치를 명사구 위치라

8) 예문 (11)에 대한 원어민의 판단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11)은 허용되는 문장으로 보인다. 예문 (11)의 주어 위치에서 일어나는 왜곡은 그 정도가 심한 것이지만 허용되는 것이다. Zwicky(1994: 5)의 문장 *Under the porch makes a poor hiding place for an alligator*, Bresnan(1994: 11)의 문장 *Between six and seven suits her fine, doesn't it?*은 동일한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Marandin(2001: 188)에서 재인용). 반면에 예문 (9)에 상당하는 프랑스어 문장 *En Angleterre est où je l'ai rencontré*는 비

할 때), 그 명사구 위치는 왜곡의 과정을 통해 절 범주의 어휘군을 받아들일 수 있다(예: *Je veux partir, Je veux que tu viennes tout de suite*). 그러나 전치사구에 속하는 어휘군은 왜곡에 의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점유관계는 통사구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어휘간의 연계에 주목할 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존의 통사이론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불충분함은 표상의 차원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존의 통사이론(예컨대, Chomsky 언어학의 여러 모형)이 사용하는 표상은 점유관계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Milner의 통사이론은 점유관계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상하고 있는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위치를 표시하는 대괄호에 통사범주를 달고, 어휘범주는 괄호에 붙여 양자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문 (10), (11) 참조).

6. 통사구조와 기하학

지금까지 우리는, 위치는 터이고, 터-위치와 그것의 점유자인 어휘간에는 점유관계라는 통사어휘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Milner식의 점유관계 표상을 밝히고 소개하였다. 또한 점유관계에는 자연스러운 관계와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으며 그것의 목록은 경험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5.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위치의 속성을 실마리로 삼아 논지를 풀어

문이다. 왜곡이 허용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에서 전치사구는 주어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 - 이 일반 명제를 벗어나는 예외로 *Sur la place se dresse une cathédrale*과 같은 문장이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은 *Une cathédrale se dresse sur la place*의 도치문(*phrase inversée*)이다(Marandin(2001: 196)). 즉, 도치문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Sur la place*는 주어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 9) 이와 같이 어떤 통사 위치의 범주를 그것을 반복적으로 점유하는 어휘의 범주에 따라 정함으로써 위치통사론은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점유관계의 자연성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하는 어휘의 범주가 다수인 경우, 그 중 한 범주를 점유되는 위치의 범주로 상정함으로써 언어습득과정에서 요구될 법한 구조적 단순성을 확보한다.

나가도록 하자. 우리는 (그림 1)에서 위치와 위치간의 관계를 통사적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통사적인 것은, 시각적 직관에 호소하기 위하여 경험적인 것을 어떤 공간 속의 질서로 표상한 후 수학의 힘을 빌어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기하학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자문을 해볼 수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기하학은 토지(土地)라는 구체(具體)를 추상(抽象)으로 옮긴 후 계산하는 과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위치 자체와, 위치간의 관계의 구체는 무엇인지 통사론의 기하학을 말하는 위치통사론자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위치 자체와, 위치간의 관계의 물질성(matérialité)에 관한 질문이라고 바꾸어 보아도 좋겠다. 이 질문은 기하학과 구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체 하에 성립된다. 만약 기하학을 순수 연역의 세계로 간주한다면, 이 질문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베를린 학파의 수학자들이 수학을 경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형식의 세계로만 보았을 때 수학의 구체가 무의미해진 것과 상통한다. 그 형식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관계만이 의미있는 것이다(Poincaré(1968: 49) 참조). Saussure의, “랑그는 실체(질료)가 아니라 형식이다(“La langue est une forme, non une substance”)”라는 명제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체스에서 중요한 것은 말(馬)의 재료가 아니라 말의 상대적 가치와 체스라는 게임의 규칙일 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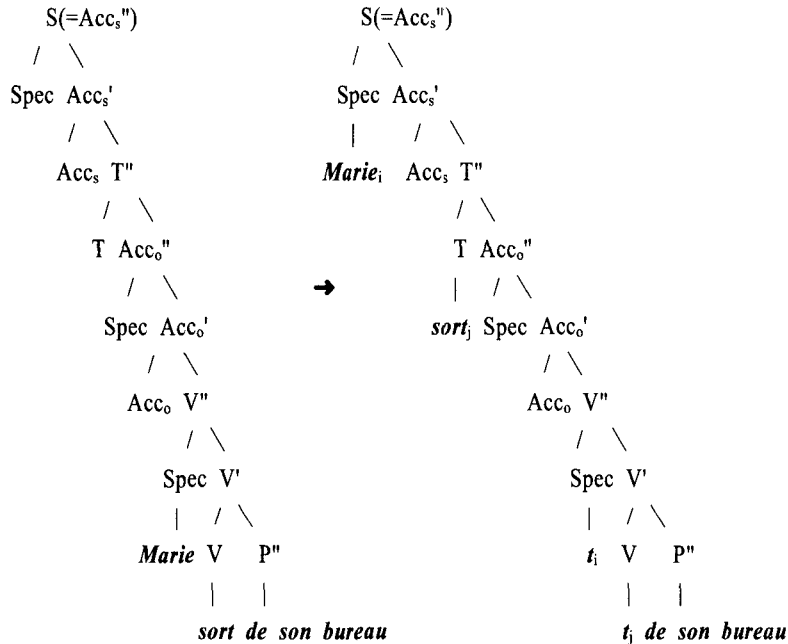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위치 자체와, 위치간의 관계가 선험적인 것이냐 경험적인 것이냐, 하는 질문이다. 여기에서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입장을 대조해 보자. 칸트에 따르면, 기하학이란 공간에 대한 직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인 공간은 선험적인 것이므로, 그만큼 기하학은 선험적인 것이다. 이 관점은 주지하다시피 비유클리드적 기하학의 관점과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반증되었다. 간단히 말해, 기하학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에 의해 영향받는 경험적인 것이 되었다(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 다른 입장은 Poincaré의 입장이다. 그는 기하학의 규약성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진도 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규약(convention)이기 때문이다.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하학의 기원이 가

리키고 있듯이, 기하학은 본질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바지하는 규약인 것이다. Poincaré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기하학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설명력, 단순성, 미학적 측면 등이 기하학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7. 맺는 말: 픽션/실재론적 통사론

Milner가 구축한 위치통사론은 이론적 장치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실재론적 통사론으로서 어휘와 자리의 경험적 차원을 통하여, 실재로서의 통사 부문을 탐색한다. 이 탐색에 자연성의 원리라는 자연언어의 원리가 상정되어 동반한다. Milner의 위치통사론이 실재론적이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픽션이기를 가능한 한 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Milner는 Chomsky 언어학의 비실재론적 측면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보자. Chomsky 언어학은 어휘의 이동을 상정하여 일련의 현상을 설명한다.¹⁰⁾ 예컨대 Chomsky 언어학의 최근 모형에서 문장의 주어는 원래는 동사 위치 내부의 위치에 있다가 일치(accord) 자질(trait)을 검증(vérification)받기 위해 일치소(Accord)라는 범주의 구범주(catégorie syntagmatique) 내의 지정어(spécificateur) 위치로 이동한다 ((그림 2) 참조).

10) Chomsky 언어학에서 이동규칙은 핵심적이다. 그것은 Chomsky 언어학이 규칙 위주의 모형에서, 1980년대에, 원리와 매개변항 중심의 모형으로 방향을 바꾼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변형규칙이다. 그것의 존재로 인해 Chomsky 언어학은 아직 변형적인 것으로 불릴 수 있다.



(그림 2)

이러한 이동은 Chomsky 언어학의 이론 내에서 주어의 일치 현상을 설명해 주고,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형태론적인 것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것임을 주장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Milner에 따르면, 예의 이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force)’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이동이 실은 일종의 메타포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결국 논리적인 것이라는 Milner의 지적에 동의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통사론이 이동을 반드시 가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동의 내용은 단순한 논리적인 방식으로도 표상할 수 있고, 실재론적 언어이론은 그것을 가급적 ‘경험적 논리’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Russell의 제자였던 Nicod의 작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Russell은 일찍 죽은 제자의 유고에 서문을 붙이면서 Nicod의 작업을 Whitehead의 작업과 비교하였는데, 후자가 ‘외연적 추상화(abstraction extensive)’라는 이름의 과정을

통하여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던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면, 전자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기반한 기하학들에 도달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본질적이면서 세밀한 고투에 비하면 Chomsky의 이동 개념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의 픽션을 넘어서,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유명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용문헌

- 임재호, 「Milner의 언어이론을 통해 본 몇 가지 통사론적 문제: 어휘와 통사구조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문, 2004.
- 츨스키, 『츨스키 - 자연과 언어에 관하여』, 벨레티 & 리쨌 편집, 이두원 역(원저: *On nature and language*, 2002), 서울, 박이정, 2003.
- 칸트, 『순수이성비판』, 전원배 역, 삼성출판사, 1990.
- Bresnan, J.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1994, 71-131.
- Chomsky, N. *Rules and represent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0.
- Holton, G. *The Scientific imagination : case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Koyre, A. *Etudes d'histoire de la pensée scientifique*, coll. "Tel", Paris, Gallimard, 1973[1966].
- Leem, J. *L'Analyse syntaxique et sémantique des emplois réciproque et emphatique de l'un...!l'autre*, mémoire de D.E.A., Université Paris 7, 1995.
- Milner, J.-Cl. *Introduction à une science du langage*, Paris, Seuil, 1989.
- Milner, J.-Cl. "La théorie syntaxique peut-elle analyser ses propres énoncés?", *Cahiers de Ferdinand de Saussure*, 43, 1990, 7-21.
- Milner, J.-Cl. *Le Périphe structural. Figures et paradigme*, Paris, Seuil, 2002.
- Marandin, J.-M. "L'hypothèse des sites en syntaxe", *Cahier Jean-Claude Milner*, Paris, Verdier, 2001, 175-227.

- Moliere, *Œuvres complètes II*, textes établis, présentés et annotés par G. Couton,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76.
- Nicod, J. *La Géométrie du monde sensible*, Paris, PUF, 1962.
- Platon, *Le Sophiste*, traduit par N. Cordero, GF-Flammarion, 1993.
- Poincaré, H. *La Science et l'hypothèse*, coll. "Champs", Paris, Flammarion, 1968.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 de Mauro, Paris, Payot, 1972.
- Zwicky, A. K. "Dealing out meaning : fundamentals of syntactic constructions",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0, 1994.

[Résumé]

Certains problèmes fondamentaux de la syntaxe reconsidérés du point de vue de la syntaxe positionnelle

Jaiho Leem
(Yonsei University)

Dans cet article, nous discutons de certains problèmes syntaxiques en ayant recours à la théorie linguistique de Milner. Nous remettons en question l'indépendance et l'identité de la structure syntaxique, la relation entre le plan syntaxique et le plan lexical, le caractère de la géométrie de la syntaxe, etc.. La discussion est non seulement linguistique mais aussi interdisciplinaire et épistémologique, dans la mesure où nous examinons la nature de l'entité syntaxique et la méthode "scientifique" de la syntaxe qui donne accès à l'entité syntaxique.

Selon Milner, il faut distinguer la place du terme lexical avec la position syntaxique qui est l'entité syntaxique. La première n'est pas syntaxique à strictement parler, mais elle, observable contrairement à la seconde, sert à conjecturer la dimension syntaxique,

c'est-à-dire le système positionnel. Le dispositif théor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de Milner n'est rien d'autre que l'ensemble des propositions qui permet, en absence d'observatoire, de conjecturer le système positionnel sur la base du système des places.

Dire l'indépendance de la structure syntaxique revient à dire qu'il y a une coupure entre le système positionnel et le système des places. Autrement dit, sans cette coupure, on ne peut parler de l'indépendance de la structure syntaxique. Ainsi distingués, les deux systèmes en cause se mettent en relation soit naturels soit non naturels ou par distorsion d'après Milner. La relation naturelle est une relation lexico-syntaxique née au moment où un terme lexical occupe une position syntaxique dont la catégorie est identique à celle de son occupant. A la différence de cette relation d'occupation naturelle supposée chez Milner comme une tendance du langage naturel, la relation d'occupation non naturelle est "paradoxale" dans le sens où elle est produite dans la rencontre plus ou moins "anormale" entre l'occupant lexical et l'occupé syntaxique. Le degré de l'anomalie qu'une langue autorise peut être mesuré empiriquement et doit être varié en fonction de la langue concernée.

Le caractère géométrique de la syntaxe amène à remettre en cause, entre autres, l'empiricité et la matérialité de la géométrie syntaxique. En ce qui concerne ces sujets, nos thèses sont les suivantes : la nature de la géométrie syntaxique n'est pas *a priori* mais empirique ; la géométrie de la syntaxe peut et doit être construite à l'aide de la logique "empirique".

접 수 일 : 2005년 4월 23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